

# 황금연휴 뒤 중간고사... 학생들 '지옥연휴'

### 5월 초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 물려 4일간 쉴 수 있어 아이들과 가족 여행 계획 잡아 놓 학부모들 허탈한 표정 정부는 '관광주간' 재량휴업 유도 여행장려 정책 '엇박자'

"다음달 황금연휴에 맞춰 온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려 했는데 포기했어요. 중학생 딸이 연휴 다음날부터 중간고사를 본다 하잖아요. 학사일정을 왜 그렇게 짰는지 허탈하네요."

광주시 남구에 사는 주부 김모(45)씨는 올 초부터 버려진 가족 해외여행을 접었다. 다음달 초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을 포함한 황금연휴(5월 3~6일)에 중국 상하이로 다녀오려던 참이었다. 딸이 중2가 되도록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데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앞으로 4년간은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아 맘 먹고 계획을 망쳤다. 연휴 다음날부터 사흘간 중간고사가 예정된 것이다.

9일 광주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교 30여개교가 5월 초 황금연휴 다음날인 7일부터 2~3일간 1학기 중간고사를 실시한다. 8일이나 9일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5월 초 황금연휴에 가족 여행 등 나들이 일정을 계획했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만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연휴 직후 중간고사 일정을 짰 학교가 원망스럽기만 하다.

광주시 광산구 S중 3학년인 박모군은 "인근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황금연휴라고 들떠 있는데, 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생겼다"고 불평했다. 중1 아들들 둔 학부모 조모(45·여)씨도 "고등학생도 아니고 이제 중인데 연휴에 놀지도 못하고 공부해야 할 형편이라 안스럽다"며 "학교에서 학생들을 조금만 배려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험 여파는 학원으로도 번지고 있다. 연휴기간 학교는 문을 열지 않아

학원을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 정책도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처음으로 5월1일부터 11일까지를 관광주간으로 설정, 이 기간에 학교 재량휴업 유도 등을 통한 국내여행을 장려하는 정책을 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일선학교는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학사일정을 짰 꼴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사일정은 교장의 고유권한이라 교육청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릴 수는 없다"며 "시험일정을 변경하려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항공권·콘도·호텔 예약 마감 임박 관련 업계 문의 쇄도 '즐거운 비명'

최장 연휴로 꼽히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예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외 주요 관광지 항공권은 사실상 동이 났고 유명 콘도·호텔 예약도 마감된 지 오래다.

하지만 최장 연휴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대기 예약자 명단에 올려놓는 경쟁도 뜨겁다. 중간고사를 앞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5월 1일(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주말), 5일(어린이날), 6일(석가탄신일)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는 휴일 가운데 2일(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무려 6일을 쉴 수 있다.

여기에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연일차 사용을 독려하는 분위기도 정착되면서 좀처럼 맞기 힘든 긴 연휴를 활용하려는 사람들의 '예약 경쟁'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당장, 봄 유채꽃이 만발한 제주도 트래킹을 즐기려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으로 인해 제주 왕복 항공권 예약은 이미 거의 끝났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광주~제주 좌석 예약률이 90%를 넘었다. 남아있는 좌석도 오후 늦은 시각이나 오전 첫 출발편 등에 불과하다. 항공편 뿐 아니라 제주로 가는 배길도 이용하기 쉽지 않다. 목포에서 제주로 가는 배편은 3일 두 차례 운항하는데 1935석과 250석 예약은 이미 끝났다. 또 3일 출발하는 해남~제주 배편(1148석)도 팔렸고 제주에서 오는 5~6일 배편 좌석도 마감된 상태다.

여수지방해양관광청이 황금연휴 기간 제주행 운항 선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숙박시설도 모두 동이 났다. 금호화수리조트는 3일부터 6일까지 220개 객실 예약이 2개월 전 완료됐다. 하지만 대기 명단에 올려주기를 요청하는 문의전화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령리조트를 비롯, 신안중도 엘도라도 리조트, 나주 중흥골드스파 등의 예약도 완료됐다.

/\*박정욱기자 halo@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8분 해질 19시 01분 달출 14시 21분 달몰 03시 00분

**미세먼지 '보통'**

포근한 가운데 구름 많은 곳 있었다.

광주	구름 많음	9/25°C
목포	구름 많음	6/16°C
여수	구름 많음	11/20°C
나주	구름 많음	6/25°C
완도	구름 많음	9/22°C
구례	구름 많음	4/25°C
강진	구름 많음	6/22°C
해남	구름 많음	5/20°C
장흥	구름 많음	5/23°C
순천	구름 많음	8/24°C
영광	구름 많음	6/22°C
진도	구름 많음	6/17°C
전주	구름 많음	7/23°C
군산	구름 많음	7/19°C
남원	구름 많음	5/23°C
혁신도	구름 많음	8/13°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시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서~북서 0.5m 시~북서 0.5~1.0m 주의 높음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서~북서 0.5m 서~북서 1.0~1.5m 주의 높음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m 목포 10:36 23:03 03:51 16:44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여수 06:04 12:29 18:37 00:00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0/23	10/20	12/17	8/19	9/23	10/23

교육부 "총장 간선제 선출 위원 무작위 추천하라"

## 전남대 교수협 "자율권 무시" 반발

전남대 교수협이 교육부의 국립대 총장 간선제에 대한 과도한 지침과 간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교수들은 '총장 선정에 참여하는 임용추천위원을 무작위 추천해 결정' 하라는 교육부의 요구는 대학의 자율권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다.

전남대 교수협이 9일 성명을 내고 "총장 직선제 폐지도 대학에 부여된 기본권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간선제마저 교육부가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이 "정부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란 이름 아래 대학의 자율성을 철저히 유린했고 총장 직선제 폐지가 그 대표적인 정책이었다"며 "총장 직선제 폐지도 모자라 이제는 간선제인 공모 방식까지도 하나하나 검사받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장 직선제 폐지가 교육부 관리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라는

의구심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듯하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교육부는 비민주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의 그늘을 당장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이 이처럼 성명을 내며 반발한 것은 최근 교육부가 간선제를 도입하는 대학에 관련 공문을 내려 보내면서 불거졌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간선제를 위한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의 내부 위원 선정시 무작위로 추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대는 총장 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총장 선거와 관련해 검찰 수사까지 받는 등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은 후, 신임 지명된 총장이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시행하기로 학내 규정을 개정했다.

개정 당시 학내 반발이 있었지만 교육부의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학내 구성원들이 간선제를 받아들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소화기 직접 뿌려보세요"

9일 광주시 서구가 마련한 어린이안전체험교실에서 셋별어린이집 학생들이 소방대원의 지도에 따라 소화기를 뿌려보고 있다.

/\*남정욱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고교 10곳중 4곳 신입생 수학 배치고사

### 고교 교육과정 수준 선행문제 출제

광주지역 고등학교 10곳 중 4곳 가량이 수학 배치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수준의 선행문제를 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69개 고등학교 수학 배치고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서울 73개교, 경기 64개교, 광주 29개교, 대구 3개교 등 모두 169개교다. 이 중 일반고 122개교, 자율고 35개교, 특수목적고 12개교였다.

분석 결과, 169개교 중 43.8%에 해당하는 74개교가 선행문제를 냈다.

학교별로는 외국어고가 58.3%로 가장 높았고, 자율고 48.6%, 일반고 41.0%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53.1%, 광주 37.9%, 서울 37.0%로 집계됐다.

선행문제를 낸 74개교 중 13개교는 전체 문제의 반 이상을 고교 과정에서 냈고, 문제 전체를 고교 과정에서 낸 학교도 7곳에 달했다.

고교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근과 계수의 관계, 조립제법, 나머지 정리 등 1학년 1학기 초반에 배우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1학년 2학기 수학II 마지막 단원인 '지수와 로그'에서 문제를 냈고, 대학교 2학년 과정인 '정수론'의 '페르마 소정리'를 이용해 푸는 문제를 낸 곳도 있었다.

배치고사를 2번 이상 본 학교는 26개교, 이 중 9개교는 3차까지 시험을 봤다. 특히 외국어고는 12개교 중 5개교가 3차에 걸쳐 배치고사를 치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NAVER 광주 소리큐

국내개발 | 국내생산

# 소리큐 보청기

NEW soriQ (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S20, S22, ST33

TV 시청할때, 강의 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찾아오시는 길: 전남대병원 맞은편 본죽2층

소리큐 보청기 광주 호남총판 062) 227-170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시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라남도 목포(삼화) 274-5987, 목포(건영) 243-7463,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